

中唐 劉言史의 시가에 담긴 현실의식과 고뇌

배다니엘*

目 录

- I. 서 론
- II. 劉言史 시가에 나타난 현실의식과 고뇌
 - 1. 시국과 사회에 대한 의식 표출
 - 2. 개인의 한계와 심리적 고뇌의 표현
- III. 결어

I. 서 론

劉言史(742?-812)는 趙州 邯鄲人으로 대략 玄宗 天寶 元年에서 憲宗 元和 7년 사이에 생존했던 인물이었다. 진사과에 응시한 경력은 없지만 수려한 시재와 넓은 학식을 지녔던 시인으로 유명하였다. 孟郊와 절친했으며 동시대 李賀에 비견되는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¹⁾ 시가의 사상과 풍격에 있어 孟郊를 비롯한 韓孟詩派와 통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韓孟詩

* 이 논문은 2016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1) 皮日休는 『皮子文藪』 卷8 「劉棗強碑」에서 “선생의 성은 劉씨요 이름은 言史인데 고향은 정확하지 않다. 그가 지은 시가 천 편에 달하는데 시구가 아름답고 폭이 넓어 李賀 외에는 세상에서 비교할 사람이 없다.(先生姓劉氏, 名言史, 不詳其鄉里, 所有歌詩千首, 其美麗恢瞻, 自賀外, 世莫得比.)”라고 하여 劉言史와 李賀를 동시에 언급하였고, 清代 翁方綱은 『石洲詩話』 권2에서 “劉言史는 李賀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李賀보다는 좀 유약하였다.(劉言史亦昌谷之流, 但少弱耳.)”라고 하여 劉言史와 李賀를 같이 언급하는 전대의 평을 확인한 바 있다.

派와 함께 활동하지는 아니하였다. 관직에 있다가 모종의 일로 嶺南지방으로 폄적 당한 후 金陵, 瀟湘 등지를 떠돌아다닌 바 있다. 成德軍節度使 王武俊이 그의 문재를 인정하여 棗強令 벼슬을 제의하였지만 병을 들어 고사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劉棗強’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劉言史가 죽은 후 孟郊는 『哭劉言史』를 통해 그를 애도하면서 “唐나라에서 불리어졌던 그의 시가가 사방 외국에서 칭송되고 있다”라고 칭찬을 가하기도 하였고 皮日休가 “李白的 뒤를 이어서 李賀와 劉言史가 가작을 지어냈다”라고 평하기도 했으니 모두 劉言史의 문학적 성취가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된다.²⁾ 『全唐詩』 卷 468에 총 69제 79수의 작품이 남아있으며 『新唐書』 『藝文志』, 『唐才子傳』 권 5, 『唐詩紀事』 권46 등에 그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劉言史가 활동했던 中唐代에는 韓愈와 孟郊를 중심으로 예술풍격과 기교의 왜신을 기도했던 韓孟詩派와 元稹과 白居易가 중심이 되어 사상과 내용상의 개혁을 지향했던 元白詩派가 문단의 주류로 활동하고 있었다. 劉言史는 元白詩派와 韓孟詩派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京師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大曆 10년 전후에 嶺南지방으로 폄적 당한 후 金陵, 瀟湘 등 재야를 떠돌면서 산수와 은일에 마음을 두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劉言史의 시가를 보면 “식자와 일반인들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雅俗共賞)” 新樂府運動을 추진하면서 白描의 표현과 직선적인 언어의 활용을 통해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펼치는(直抒胸意)” 元白詩派의 특징과 시가 창작에 새롭고 신기한 재능을 발휘하여 기함하면서도 정교한 표현을 추구했던 韓孟詩派 시가의 특징을 모두 수용한 듯한 면모도 지니고 있다. 그가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

2) 孟郊, 『孟東野集』 卷10 『哭劉言史』: “유언사의 시는 정밀하고도 이채로우니, 그의 시심은 아름다운 강물에 기울었다. 그의 시는 언어 진바 되어, 동쪽 어두운 파도 위를 날아 건너갔구나. 애석하구나 중국의 노래가, 사방 오랑캐의 노래로 칭송되고 있다니.(精異劉言史, 詩腸傾珠河. 取次抱置之, 飛過東溟波. 可惜大國謠, 揚爲四夷歌.)”의 기록을 통해 劉言史의 작품이 해외에서도 문명을 얻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皮日休는 『劉棗強碑』에서 “비록 李白을 따라잡지는 못했어도 후대에 가작이 나왔는데 李賀와 동시에 劉言史가 있다.(雖不追躡太白, 亦後來之佳作也, 有與李賀同時, 有劉棗強焉.)”라고 하여 李白을 잇는 인물로 劉言史와 李賀를 동시에 언급하였다.

하고 시국에 분노하며 쓴 작품들은 대체로 수식이 배제된 직서적인 필법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의 고뇌를 밝히거나 경물에 대한 묘사를 가한 작품은 수려하고 함축적인 표현 속에 복잡한 심정을 투영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劉言史는 孟郊와 친분이 두터웠고 李賀에 비견되는 필치를 지니고 있었기에 韓孟詩派와 가깝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시가의 영향관계에 상관없이 어느 한 유파의 구성원이 되지 않은 채 재야문인의 삶을 살아갔다. 이런 점으로 인해 그간 기존 문학사서에서 劉言史에 대한 주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劉言史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에 있었다. 劉言史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商隸君, 「劉言史生平考」(1988), 商隸君, 「中唐詩人劉言史初論」(2003)을 필두로 胡蓉, 「論劉言史詩歌的地域性」(2008), 胡蓉, 「平實鋪張, 美麗恢瞻—論中唐河北詩人劉言史詩歌的藝術性」(2009), 賈建鋼·李紅霞, 「中唐劉言史詠茶詩脛論」(2014), 園光, 「論劉言史比于李賀」(2016)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와서야 劉言史에 대한 주목과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간 출간된 논문들을 보면 劉言史의 생평을 고증한 논문을 제외하고는 시가의 주제, 예술성 등을 개략적으로 조망하거나 劉言史의 茶詩, 李賀와의 비교 등 지엽적인 문제를 다룬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中唐 문단의 일석을 차지하고 있는 劉言史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사회 현실과 개인의 이상과 처세 사이에서 갈등했던 中唐 문인의 작품과 심리묘사에 관심을 갖고 劉言史를 주목해보고자 하였다. 시대적 위기감과 현실의 부조화가 팽배한 속에서 일개 군소문인으로 문학에 참여한 시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갈등의 편집체계를 통해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확립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劉言史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확대하여 그가 창작했던 현실의식과 고뇌를 담은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劉言史 시가의 주제를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고찰하는데 있어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 劉言史 시가에 나타난 현실의식과 고뇌

商隸君의 「劉言史生平考」(1988)를 참조해보면 劉言史의 생평은 젊어서 학문을 익힌 후 京師에서 관직에 있던 시기, 大曆 10년 전에 嶺南지방으로 폄적당한 후 金陵, 瀟湘 등지를 떠돌던 시기, 王武俊의 막부에 있던 시기, 元和 6년 李夷簡의 요청으로 襄陽을 방문한 후 졸하기 까지 등으로 대략 4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제1기에는 밝고 의욕에 찬 시가를 주로 썼으나 제2기 이후로는 시국에 대한 의식이나 자신의 고뇌를 담은 작품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제3기에는 교유관계를 언급하거나 개인의 번뇌를 상대적으로 많이 피력했고 산수 묘사나 은거의 욕망을 기술하기도 하였다. 제4기에는 영회시를 비롯하여 각종 사상을 추구하거나 산수 속에서 누리는 해탈을 표현한 작품이 많다. 劉言史의 시는 『全唐詩』 卷468에 총 69제 79수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이를 詩題와 내용을 감안하여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內容	酬贈	交遊	送別	寫景	隱逸	詠懷	現實	紀游	詠花	計
篇數	9	8	5	14	7	17	8	5	6	79

이 분류에 의하면 자연을 유람하며 정경이나 꽃을 노래하거나 은일을 노래한 시가 26수로 가장 많고, 현실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소회를 밝힌 시가 25수, 친우들과 우의를 나누며 수증하거나 송별하며 지은 시가 22수에 달하고 있어 대략 경물시, 영회시, 교유시 등의 세 방면의 창작에 주력했음을 살필 수 있다. 자신의 소회를 밝히거나 현실에 대한 의식을 펼친 시가가 많다는 것은 시대에 대한 강렬한 인식을 소유했음을 추측하게 하는 부분이며 산수 속에서 자연을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점은 그가 韋應物, 柳宗元을 중심으로 한 中唐代 자연시 성취에 기여한 바가 있음을 파악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劉言史의 시가를 살펴보는 것은 中唐代 문인들의 현실의식이나 교유 관계, 문인 개인들의 사유방식, 中唐 자연시의 특색적인 풍격을 구명

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제 劉言史의 여러 시가 중 현실에 대한 소회를 표출하거나 시국에 대한 의식을 투영한 작품, 개인의 번뇌를 토로한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中唐代 문인들이 지녔던 의식과 고뇌의 단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시국과 사회에 대한 불만 의식 표출

劉言史는 安史의 난으로 인한 여파가 상존하는 시대를 살면서 언제나 사회와 자신에 대한 근심을 안고 살아갔던 인물이었다. 盛唐代 같은 전성기에도 하급관료나 官途가 순탄치 않았던 문인들은 내면의 실의를 지니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어수선한 中唐 시국 속의 문인들이 더욱 큰 고뇌를 숙명처럼 지니고 있었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쇠락의 시국에서 나온 王叔文의 政治革新 운동은 韓愈, 柳宗元, 白居易, 元稹 등의 호응을 얻었으나 형세를 돌리지는 못하였고 문인들의 의식을 쇄신하기 위한 韓柳의 古文運動이나 元白의 諷諭詩 역시 일정한 문학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있었다. 劉言史가 살았던 中唐代는 盛唐의 분발된 시대의식이나 문인의 호방한 창작욕과는 거리가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었으며 관직에서의 성취감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京師에서의 짧은 관직생활 후 폄적되어 지방을 전전하던 劉言史의 개인적 이력 역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고뇌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친히 목도하고 체험한 백성의 삶은 그로 하여금 현실반영의 깊은 울림을 갖게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孟郊를 비롯하여 한미한 처지에 있었던 문사들과 교류하며 시국에 대한 의식을 교류한 것 역시 그의 시가 현실성을 띠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³⁾ 따라서 劉言史의 작품을 살펴보면 백성의 현실을 묘사하거나 현실이

3) 『全唐詩』卷468에 실린 劉言史의 69제 79수의 작품 중에서 「苦婦詞」, 「梅花謠」, 「樂府雜詞三首」, 「北原情三首」등 4題 8首의 시가 시국이나 백성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총 17수에 달하는 詠懷詩나 22수에 달하는 交遊詩에서도 부분적으로 시국의 고뇌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발견된다. 孟郊를 비롯한 재야의 여러 문사들과의

주는 고뇌를 토로한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劉言史 시의 중요한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劉言史가 백성에 대한 동정과 시국에 대한 회한을 담음으로써 현실적 고뇌를 표출한 작품을 예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란으로 과부가 된 이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리면서 약자에 대한 동정과 시국에 대한 원망, 통치자를 향한 분감을 절절히 표현해낸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苦婦詞」(괴로운 과부의 노래)

哀哉苦婦身	슬프도다 괴로운 과부의 신세여
夫死百殃纏	남편이 죽자 온갖 재앙이 그녀를 감쌌구나
草草催出門	재촉하듯 거칠게 문을 나섰는데
衣墮髮披肩	옷은 다 떨어지고 머리는 어깨에 늘어졌다
獨隨軍吏行	홀로 군대가 가는 곳 따라나섰는데
當夕餘欲遷	저녁이 되어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 가네
來時已厭生	지금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왔었는데
到此自不全	지금도 홀로 온전하지 못하겠네
臨江臥黃砂	강가에 이르러는 누런 모래톱에 누워
二子死在邊	두 아들이 변방에서 죽은 것 슬퍼하네
氣噓不發聲	숨은 이어지나 소리는 내지 않고
背頭血涓涓	뒷머리에는 피가 흘러내리네
有時強爲言	억지로 말을 떼는 때가 있어도
只是尤青天	그저 푸른 하늘만 탓할 뿐이라
稿蓐無一枝	앉은 자리에서 의지할만한 가지 하나 없어
冷氣兩懸懸	차가운 기운만 주변을 감싸고 있네
窮荒夷教卑	궁핍하고 가난하면 비천하게 되기 쉽고
骨肉病棄捐	골육이라도 병들면 버리고 돌보지 않네
況非本族音	하물며 본래 가족이 아니라 하면
肌露誰爲憐	피부가 벗어진들 그 누가 가엾게 여길 것인가
事痛感行賓	관리들은 백성의 고통스러운 일에도 손님 대접 받을 생각만 하고

교류 역시 劉言史 시가의 현실의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住得食程船	원정선을 통해 얻을 것만 탐하네
必當負嚴法	마땅히 엄정한 법으로 책임을 지워야 하지
豈有胎孕篇	이런 자에게 어찌 胎孕篇의 가르침이 있었는가?
遊畋復釋鷹	그들은 밭에서 노닐며 사슴 새끼를 또 풀어놓았구나
羔兔尙免鷓	새끼 양과 토끼 아직은 매의 공격을 면하고 있지만
何處擯逐深	어느 곳에서 쫓기는 것 면할 수 있으랴
一罪三見顛	백성은 한 번 죄를 얻으면 세 번 넘어지게 된다네
校尉勳望重	교위는 공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幕府纔且賢	막부에서는 그나마 현명한 모습을 보이네
蘭裙間珠履	향기로운 치마 사이로 구슬이 밝히고
食玉處花筵	귀한 음식 먹는 곳에 화사한 자리 펼쳐 있네
但勿輕所聞	그저 어두운 세간의 소식 가볍게 여기지 말고
莫慮無人焉	그곳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아들까지 변방에서 잃은 한 과부가 군대의 출정을 보자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여인이 남루한 옷에 봉두난발한 모습으로 강가에 누워 변방에서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던 시인은 이윽고 시국에 대한 강렬한 분감을 표출하게 된다. 관리들이 백성의 고통을 아랑곳 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과 원정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을 질책하면서 매의 공격에 위태로운 새끼 양과 토끼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대조하여 기술하고 있다. “교위는 공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막부에서 지혜로운 듯 행동하지만(校尉勳望重, 幕府纔且賢.)” 지혜롭다는 이가 과부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풍자의 의미를 담아냈다. 천자에서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영달에만 신경 쓰고 백성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부분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 결미 부분에서 ‘蘭裙’, ‘珠履’, ‘食玉’, ‘花筵’ 등 화려하고 귀한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평민들과 대비되는 권세가의 삶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평등한 세상을 소망하는 그의 ‘평민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 된다.⁴⁾ 미연에서 “勿輕所聞” 구절을 통해 통치자에게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

4) 胡蓉, 「平實鋪張, 美麗恢瞻—論中唐河北詩人劉言史詩歌的藝術性」, (邢台: 邢台學院學報,

를 각성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구절구절 담아낸 비통함과 사회적 분노를 잘 요약하고 있다.⁵⁾

中唐 시기에는 安史의 난이 끝나기는 했어도 藩鎮들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전란으로 인해 백성의 삶은 계속 피폐함을 면치 못하는 현실 속에 있었다. 劉言史는 中唐의 藩鎮割據라는 위태로운 시국을 살면서 부패하고 어려운 사회 현실을 다각도로 체험하고 민중의 삶을 기록한 시인이었다. 그가 藩鎮의 폭정 속에 살면서 시대상을 반영해낸 작품 중 「北原情三首」가 있다. 이 작품은 洛陽 북쪽 北邙山의 묘지를 보면서 시절에 대한 비감과 소회를 기록한 것으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다. 藩鎮의 전횡을 고발하면서 비애에 찬 시대상을 기록해낸 「北原情三首」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北原情三首」其一 (북쪽 들녘을 바라보는 정회를 쓴 세 편의 시) 제1수

錯莫天色愁 저물녘 하늘에는 근심이 섞여 있는데
輓歌出重關 만가 속에 상여가 무거운 성문을 나서네
誰家白網車 하얀 천 씌운 거마는 그 누구의 집 것인가
送客入幽塵 어두운 곳으로 객을 보내네
銘旌下官道 관도를 따라 상여 깃발이 내려가는데

2009. 3. 제24권 2기) : “이 시의 결미인 ‘향기로운 치마 사이로 구슬이 뚫히고, 귀한 음식 먹는 곳에 화사한 자리 펼쳐 있네.’에서는 상류층 부자의 생활과 평민을 대조하여 사람 사이의 불평등을 폭로했으니 인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충만하며 그의 평민 의식을 표현한 부분이다.(在這首詩的結尾“蘭裙間珠履，食玉處花筵”將上層富人的生活與平民作了對比，揭示了人與人之間的不平等，充滿了對人性的關愛，表現了他的平民意識.)” 라는 평어를 참조할 수 있다.

- 5) 商隸君은 「中唐詩人劉言史初論」, (滄州: 滄州師範專科學校學報, 2003. 6. 제19권 2)에서 “全詩聲悲, 字字憤, 在同時代詩人中如此深刻的作品是不多見的. 只有詩人好友孟郊「寒地百姓吟」可與之相比. 孟郊在詩中一方面寫着“無火炙地眠, 夜皆立號……霜吹破四壁, 苦痛不可逃.”的寒地百姓生活以及其愿作向灯投火的飛而不可得的憤激心情. 另一方面又寫着豪門貴族“高堂鐘飲, 到曉開烹炮”的享樂腐化生活, 鮮明地揭露了兩個階級生活的對立和矛盾. 二詩交相輝映, 但後人對孟郊此詩評價甚高, 對劉言史詩却根本沒有注意, 這是不公平的!”라고 하여 劉言史의 「苦婦詞」가 孟郊의 「寒地百姓吟」에 비견할 만한 좋은 작품인데 그간 孟郊 「寒地百姓吟」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불공평한 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이 주목받을 만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평가한 내용이다.

葬輿去鞦韆	주검을 실은 수레는 덜컹거리면서 굴러간다
蕭條黃蒿中	쓸쓸하게 펼쳐진 누런 쑥 사이로
奠酒花翠新	제주와 꽃 새로이 놓였구나
米雪晚霏微	저녁 되니 쌀 같은 흰 눈 흩날리는데
墓成悄無人	묘지 앞은 쓸쓸하고 아무도 없네
烏鳶下空地	까마귀와 매는 빈 땅에 내려 앉고
煙火殘荒榛	불과 연기 황량한 덩불에서 일어난다
生人更多苦	삶을 영위하자니 생은 더욱 괴롭고
入戶事盈身	집 안에 들어오면 참담한 일만 온몸에 그득하네
營營日易深	바쁜 중에도 날은 쉽게 흘러가버려
卻到不得頻	다시 와보려 하나 자주 그러기가 어렵다
寂寥孤隧頭	적막하고 외롭게 길 입구에 있는 중에
草綠棠梨春	초록이 물든 팔배나무에 봄이 와있네

安史의 난 이후 德宗 시기로 오면서 李希烈, 田悅, 朱滔, 王武俊, 李納 등을 위시한 藩鎮들의 활거가 한층 극심해지고⁶⁾ 백성의 삶이 피폐함과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현실은 시인으로 하여금 더욱 애통한 심정을 토로하게 만든다.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죽음이 낙양 인근 묘지로 몰리는 애절한 모습을 쓸쓸한 정경 묘사와 함께 잘 표현해냈다. “관도를 따라 상여 깃발이 내려가는(銘旌下官道)” 모습은 관리의 무능이 무고한 백성을 죽음의 길로 이끈 듯한 느낌을 제공하며 “괴로움 많은 중에 영위하는 삶(多苦)과 참담한 일로 힘들어 하는 몸(事盈身)”을 통해 당시 처한 백성의 고난을 효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죽은 이에 대한 애도 뿐 아니라 산자에 대한 강한 동정의 마음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북망산 묘지에 대한 처절한 정경 묘사를 통해 슬픈 현실의 극렬한 폭로를 시도한 제2수와 더욱 많아지는 슬픈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수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6) 『新唐書·李希烈傳』：“나라 안에서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인심을 잃게 되었다. … 오적(변진 李希烈, 田悅, 朱滔, 王武俊, 李納 등)의 잘못이 천하에 이어졌다.(海內蕩析, 人心失歸. …… 五賊(藩鎮 李希烈、田悅、朱滔、王武俊、李納), 株連天下.)”

「北原情三首」其二 (북쪽 들녘을 바라보는 정회를 쓴 세 편의 시) 제2수
 洛陽城北山 낙양성 북쪽 산에는
 古今葬冥客 예로부터 지금까지 묻힌 객들이 많다네
 聚骨朽成泥 모여진 뼈들이 썩으면 진흙이 되니
 此山土多白 이 산은 절로 하얀 흙이 많구나
 近來送葬人 근래에 장사 치르는 이가 많아져서
 亦去聞歸聲 돌아가는 도중에 다른 장사 행렬 소리 듣는다
 豈能車輪疾 영구 마차는 어찌 저리 빠르게 질주하는가
 漸是墓侵城 묘역은 점점 더 낙양성 쪽으로 침범하는구나
 城中人不絕 성중에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끊기지 않고
 哀輓相次行 애처로운 만가를 서로 부르며 송별한다네
 莫非北邙後 부디 북망산에 묻힌 것에서 끝나지 말고
 重向洛城生 낙양성에서 다시금 태어나기를

“모여진 뼈들이 썩으면 진흙이 되고, 그로 인해 흙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했다.(聚骨朽成泥, 此山土多白.)”라는 이채롭고 과장된 표현을 통해 북망산의 슬픈 정경을 강조하고 있다. 장래를 치르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듣게 되는 또 다른 죽음의 행렬 소리, 죽는 이가 많아져서 묘역 또한 늘어나 洛陽城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현상 등을 다룬 표현 역시 평범하지 않은 묘사이다.⁷⁾ 무엇보다 작자의 진정한 마음은 백성의 고통에 대한 강한 동정과 슬픔에 대한 애도에 있음이 발견된다. “낙양성에서 다시금 태어나(重向洛城生)” 고통 없는 온전한 삶을 새롭게 살기를 기원하는 구절이 작가의 희망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北原情三首」其三 (북쪽 들녘을 바라보는 정회를 쓴 세 편의 시) 제3수
 卜地起孤墳 땅을 골라서 외로운 고분을 세우고는

7) 胡蓉은 상계논문에서 “「北原情三首」墳墓相疊相續在一起, 叢叢青草新生了, 洛陽城中的生命依舊在延續, 莫非是北邙山的亡者又重生了嗎? 在現實主義的描寫中, 基調是淒涼慘淡的, 與韓孟詩派的幽冷枯索相應.”라 하여 劉言史의 이 작품이 孟郊를 비롯한 韓孟詩派와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비슷한 시풍을 드러내고 있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몇몇 시가를 보면 표현기법 면에서 劉言史와 韓孟詩派와의 상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劉言史가 韓孟詩派 문인들과 전체적으로 교류하면서 같은 문학적 주장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인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심도 있는 고찰을 필요로 한다.

全家送葬去 온 가족이 장례를 치르고 간다
 歸來卻到時 돌아왔다가 절기가 되어 와보니
 不復重知處 그 묘지의 정확한 지점을 다시 알아내지 못한다
 疊疊葬相續 장례가 계속 이어져 무덤이 첩첩이 쌓였고
 土乾草已綠 땅이 마르고 풀은 이미 푸르러 있다
 列紙瀉壺漿 지전을 늘어놓고 먹을 것을 땅에 부운 후
 空向春雲哭 부질없이 봄 구름 향해 한 바탕 곡을 하나니

정성스레 땅을 골라서 무덤을 세웠으나 다시 찾아오니 사방에 온통 늘어난 무덤으로 인해 그 정확한 장소를 다시 찾기 어렵다. “땅이 마르고 풀은 이미 푸르러 있는 현상(土乾草已綠)”은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지만 찾기 어려운 무덤의 존재는 가족들의 슬픔을 더욱 심화시켜 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지는 슬픔의 원인은 불안정한 시국으로 인한 고통이다. “부질없이 허공의 봄 구름 향해 한 바탕 곡을 해대는(空向春雲哭)” 유족의 모습은 혼란의 현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백성의 신세를 잘 대변한 표현이 된다.

다음 작품은 고난에 찬 백성의 삶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좋은 꽃을 사서 감상하는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행태를 고발한 작품이다.

「買花謠」(꽃 파는 이의 노래)

幽艷凝華春景曙 그윽하고 고운 경치 화사하게 응어리져 봄 경치 빛났는데
 林夫移得將何處 임부가 옮겨가니 어디로 갈 것인가
 蝶惜芳叢送下山 나비도 산 아래로 내려가는 꽃무더기 아쉬워하며
 尋斷孤香始回去 고독한 향기 찾기를 그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
 豪少居連鳩鵲東 부호의 집으로 동쪽에서 매와 까치 연이어 날아드는데
 千金使買一株紅 천금을 들여 한 그루의 붉은 꽃을 사들인다
 院多花少栽未得 정원은 많은데 꽃은 적어 심을 곳 아직 못 채웠다 하네
 零落綠娥纖指中 푸른 눈썹 그린 미인의 가는 손가락 사이로 저버릴 것을
 咸陽親戚長安里 함양의 친척들 장안에 사니
 無限將金買花子 무한한 돈을 들여 꽃을 사들이누나

본래 산에 있어야 되는 꽃이나 부호들의 소유욕으로 인해 개인 정원으로

옮겨져 본성을 헤치는 것을 풍자하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된다. 천성이 훼손되는 아쉬움을 나비가 꽃의 옮겨감을 아쉬워하며 쫓아가다 돌아가는 형상을 통해 이채롭게 묘사해냈다. “천금을 들여 꽃 한 송이를 사들이면서도(千金使買一株紅)” “정원은 많은데 꽃이 적어 심을 곳 아직 못 채웠다(院多花少栽未得)” 하는 표현은 귀족이 추구한 사치의 극을 보여준다. 그러나 꽃이란 결국 零落하는 존재이니 귀족들이 지금은 호사를 누리고 있지만 결국은 가치 없이 사라질 영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행간에 기록해 놓고 있다. 杜甫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의 “朱門酒肉臭, 路有凍死骨.”의 의미를 재현해 놓은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劉言史가 지인에게 문병을 가서 쓴 시 「彌公院問病」을 보면 세상에 대한 근심을 개인의 근심보다 앞세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彌公院問病」(필공의 정원으로 문병 가서)

一頭細發兩分絲	가늘게 나온 파초 한 가지에 실 같은 두 줄기 일
臥見芭蕉白露滋	와병 중에 그 모습 보니 앞에는 하얀 이슬 맺혔어라
欲令居士身無病	처사의 몸에 병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直待衆生苦盡時	중생의 고통이 다 사라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을

전반부에서 파초의 가늘고 여린 모습과 이슬 맺힌 자태를 통해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위문의 뜻이었다면 후반부 두 구절에서는 일신의 무사함보다 온 백성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대의적인 뜻을 담고 있다. 상대방이 병이 치유되려면 중생이 모든 고초가 사라진 뒤에나 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상대의 애민 정신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盛唐 杜甫가 바람에 자신의 茅屋이 바람에 날라 간 뒤에도 개인의 근심보다는 천하의 평안을 먼저 생각해낸 구절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다.⁸⁾

8) 杜甫가 「茅屋爲秋風所破歌」에서 成都 草堂이 가을바람에 날아 간 이후에도 “어찌하면 천만 칸의 넓은 집 얻고, 천하의 빈한한 선비들 환한 얼굴 짓게 할 수 있을까(安得廣廈千萬間, 大庇天下寒士俱歡顏.)”라고 노래한 구절과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며 후대 宋代 范仲淹이 「岳陽樓記」에서 “천하의 근심을 앞서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에 즐

劉言史는 꺾적생활을 통해 각지를 전전하면서 몸소 겪은 바가 있었기에 진솔한 시각으로 백성의 고난을 인지하고 동정의 감정을 담아 절절하게 표현해 낼 수 있었다. 백성의 실상을 고발한 시는 그가 지닌 현실의식과 결합하여 더욱 깊이 있는 울림으로 표출되었다. 王況의 옛 처소를 찾았을 때의 쓴 다음 작품을 보면 하층민의 어려운 생활을 보며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작가의 양심이 행간에 담겨 있다.

「題王況故居」(왕황의 옛 처소에서 쓰다)

入巷蕭條起悲緒	처소의 골목길 쓸쓸하여 슬픈 마음이 이는데
兒女猶居舊貧處	자녀들은 아직도 가난한 옛 처소에 기거하고 있네
塵滿空牀屋見天	먼지 가득한 빈 침대와 지붕 뚫린 하늘이 보이는데
獨作驢鳴一聲去	당나귀가 한 줄기 울음을 울며 떠나가누나

지인의 처소를 묘사하고 있지만 백성의 어려운 삶을 토로하는 것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수구에서 쓸쓸함을 표현하는 형용사 ‘蕭條’를 통해 생활의 어려움을 암시하였고 제2구와 제3구에서 남겨진 자녀들과 가난한 옛 처소, 열악한 집 상태 등을 차례로 거론함으로써 가장의 부재와 빈한한 생활을 효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경을 대한 시인의 심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홀로 마음 추스르며 시를 지을 수밖에 없다. 당나귀 울음 한 줄기로 시인의 아픈 심정을 대변함으로써 슬픔의 극대화라는 시적 효과를 더하고자 했음을 발견할 수 있겠다.

劉言史가 활동했던 中唐 貞元, 元和 시기에는 중흥의 기운을 구가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晚唐 쇠퇴기의 전조를 드러내는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이 병존 하던 시대였다. 특히 安史 亂 이후 상존했던 藩鎮의 활거를 원인으로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관직에서 뜻을 얻지 못한 채 지방을 전전하는 하급 문인들로써는 시대적 혼란에 고뇌하는 양심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한계성이 상존하는 시기였다 할 수 있다. 劉言史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

긴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는 의식을 펼친 것과는 맥을 같이 한다. 현실의식을 갖고 공의로운 사상을 앞세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뇌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였으니 時事에 대한 의식을 갖고 위정자를 비판하거나 현실을 폭로하고 민중의 삶에 동정을 표하며 시대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을 잘 창작해내었다. 劉言史는 中唐 문단의 주류로 활동했던 元白詩派나 韓孟詩派⁹⁾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元白詩派 스타일의 사회의식을 담은 시가를 다수 창작해내면서 韓孟詩派의 寒冷하고 신기한 필법까지 구사할 줄 알았던 문인이었다. 그는 시를 지음에 있어 진솔한 감정과 체험의식을 담아내는데 힘을 쏟았으니 이는 강한 현실성을 발휘한 元白詩派 스타일의 일면이며, 한편으로는 수차례 세심한 수정을 가한 후에 문장을 이루어내는 창작 경향도 지녔으니 이는 韓孟詩派의 정심한 창작경향을 겸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中唐의 시대적 위기감은 재야에 거주하거나 산수 속에서 살아갔던 문인들까지 현실을 각성하고 참여하게 하였으니 劉言史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元結과 獨孤及은 '風'의 진작을 통해 世道와 人心을 구해내고자 하였고, 韋應物은 절제된 처신을 하면서 민간의 고통을 들어 질타를 가했으며, 劉長卿과 李嘉祐 역시 시대의 어려움을 고발하는 의식을 펼치고 있었다. 劉言史는 표현 기교보다는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특정 유파의 구성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양심을 갖고 中唐의 시대의식을 펼쳐낸 문인이었다는 점에서 작가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의 한계와 심리적 고뇌의 표현

劉言史 시가의 주제 분류에 의하면 劉言史의 詠懷詩는 17수에 달하여 전체

9) 劉言史가 활동했던 中唐代 시단의 주류는 元白詩派와 韓孟詩派였다. 元白詩派는 元稹과 白居易를 위시하여 元結, 張籍, 劉禹錫 등이 천연스러운 시정을 펼치며 사상과 내용의 개혁을 지향했으며, 韓孟詩派는 韓愈와 孟郊를 중심으로 盧仝, 賈島, 馬異, 劉叉, 李翱, 皇甫湜, 張徹, 崔立之, 侯喜 등이 함께 새롭고 신기한 재능을 발휘하며 예술풍격과 기교의 창신을 기도하였다. 劉言史는 이들 유파의 성원이 되지는 못하였으나 孟郊와 깊은 교분을 나누거나 元白詩派나 韓孟詩派의 사상과 필법을 구현해내는 등 당대 문인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창작했음을 작품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시가 중 가장 많은 편수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시인들로 하여금 불안정한 의식과 다양한 소회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安史 亂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藩鎮의 割據, 朋黨의 交爭, 宦官의 進興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唐 王朝 중흥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상실되고 자신의 濟世意志를 실현하기 어렵게 된 현실은 中唐의 문인들로 하여금 더욱 불안감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었다. 劉言史는 시대적 상황이 주는 고뇌와 개인의 순통하지 못한 이력으로 인해 줄곧 고뇌하는 의식을 지니고 살아간 시인이었다. 떨쳐내지 못한 고뇌와 상실감은 劉言史로 하여금 여러 편의 詠懷詩를 창작하게 하였다. 그가 「偶題二首」에서 “빛나는 방과 영화로운 이름 모두 잃어버렸고, 병든 몸에 서민으로 다시금 도깨비 같은 삶에 빠져들었네.(金榜榮名俱失盡, 病身爲庶更投魑.)”, “죄를 얻어 관직에서 이름을 제거하고 땅 끝으로 폄적되었으니, 놀란 마음에 경황이 없고 몸에는 근심이 가득.(得罪除名謫海頭, 驚心無暇與身愁.)”라고 밝힌 것처럼 관직에서 득의하지 못한 채 폄적 당하여 외지를 전전한 이력이나¹⁰⁾ 成德軍節度使 王武俊의 수하에 있으면서 고뇌와 병으로 힘든 나날을 보낸 이력¹¹⁾ 등은 그의 영회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한 요인

10) 劉言史는 청년기에 고향에서 수학했으나 科擧에 임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의 시 「樂府雜詞」, 「春游曲」 등을 통해 그가 일찍이 京師에서 관직에 있다가 모종의 일로 인해 貶謫 당해 嶺南지방에서 기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商隸君은 상계논문인 「中唐詩人 劉言史初論」에서 그가 建中 3年(780) 이후에 王武俊의 막료가 되었다는 기록을 참고하여 그의 폄적 시기가 大歷 10年(775) 전후였음을 고증한 바 있다. 그의 시 「偶題二首」: “죄를 얻어 관직에서 이름을 제거하고 땅 끝으로 폄적되었네.(得罪除名謫海頭)”, 「苦婦詞」: “추석이 이후로 옮겨가고 싶다.(當夕餘欲遷.)” 라는 기록과 「廣州王國寺伏日即事寄北中親友」, 「越井台望」 등의 시에 기재된 기록을 볼 때 그의 폄적지가 嶺南지방이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11) 각지를 떠돌던 劉言史는 建中 3년 이후 일찍이 조정에 반역하여 스스로 趙王이라 칭한 경력이 있는 王武俊의 막부에서 있게 되었다. 王武俊은 그의 문재를 인정하여 囊強 술 베풀을 제의하기도 했지만 劉言史는 병으로 인해 고사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그는 현실의 처신과 ‘歸隱’ 사이에서 고뇌하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王武俊의 막료로 있을 때 쓴 「王中丞宅夜觀舞胡騰」, 「上清江上人」, 「林中獨醒」 등 작품의 내면에는 현실과 귀은 사이의 갈등과 王武俊의 막료로 있으면서 고뇌하는 심정이

이라고 본다. 劉言史는 사회 현실에 통감하는 작품을 통해 현실의식을 표출하기도 하였지만 뜻을 펼치지 못한 채 고뇌하는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우수를 간직한 시가들을 다수 창작해내게 된 것이다. 유언사의 시를 통해 中唐 재야문인들의 속내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자신의 고뇌를 드러낸 몇몇 작품들을 예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劉言史가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학문적 역량과 식견이 세상에서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젊은 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건만 소양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낸 것을 생각하니 세상사가 한없이 부질없게 인식된다. 그러한 심정을 밝혀놓은 다음 작품을 통해 中唐代 지식인이 지녔던 한계의식과 고뇌를 가늠해 볼 수 있다.

「放螢怨」(반딧불을 놓아 보내며)

放螢去, 不須留	반딧불을 놓아 보내야지 붙잡아 둘 필요가 없네
聚時年少今白頭	어린 시절 형설의 공을 쌓았건만 이제는 흰 머리만 남았구나
架中科斗萬餘捲	서가에는 과거 준비하던 책 만 여권
一字千回重照見	한 글자마다 천 번씩 반딧불이로 비쳐 보았었지
靑雲杳渺不可親	푸른 구름은 아득히 흘러가고 다시는 가까이 할 수 없어
開囊欲放增餘怨	주머니 열어 반딧불을 놓아주자니 쌓인 원한 더하구나

일찍이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螢雪之功’¹²⁾을 쌓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꿨건만 세월이 흘러도 시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상은 헛된 꿈으로 변해 있다.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기약하는 ‘螢雪之功’ 고사를 이 시에서는 원한의 단초로 언급하였고 中唐 문인이 지닌 한계성을 부각

실리게 된다.

12) 東晉의 車胤이 학문을 좋아했지만 가난해서 등유를 얻지 못하자 여름철이면 練囊에 수십 마리의 개똥벌레를 잡아넣고 그 빛으로 책을 읽었다는 고사와 孫康이 눈빛으로 글을 읽었다는 ‘孫康映雪’의 고사를 일러 함께 ‘螢雪之功’으로 말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학문에 힘쓸 것을 장려하는 고사로 활용하고 있으나 劉言史는 이 시를 통해 자신의 한을 대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용도로도 활용하였다.¹³⁾ 제6구에서는 현실에서 종래 득의하지 못해 꿈을 포기하고자 하나 그간의 고생과 한은 그로 하여금 더욱 원한을 쌓게 하여 결국 또다시 새로운 시름 속에 빠져들게 됨을 언급하였다.

불안한 시국에서 기인한 시대의식과 근심이 마음을 옥죄고 있지만 세상을 개혁할 능력이나 기회도 찾지 못하니 劉言史의 마음은 언제나 답답함 속에 있었다. 여기에 관직에서 득의하지 못하고 폄적당해 지방을 전전하던 처지로 인한 원망과 시름은 그의 마음속에 숙명과 같은 번뇌의 고착을 이루에 한다. 내면에 깊게 깔려있는 시름과 고뇌는 작품창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번뇌와 고민, 원한과 쓸쓸함 등의 부정적 감정이 시가 곳곳에 이입되게 되며 시가의 전체적인 내용과 풍격 또한 ‘蕭散’하고 ‘孤寂’한 면모를 띤 작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劉言史가 한 여인의 신세에 빗대어 자신의 한을 표현한 작품을 살펴본다.

「長門怨」(장문원)

獨坐爐邊結夜愁	홀로 난로 가에 앉아 있노라니 밤 근심 맺혀
暫時思去亦難留	잠시 생각을 흘려보냈지만 다시 괴롭게 남아 있네
手持金箸垂紅淚	부젓가락 쥐고 있는 손에 붉은 눈물 떨어지니
亂撥寒灰不舉頭	차가운 재 어지러이 날리는 중에도 고개 들지 못하누나

시가에 나오는 여인의 눈물은 옛 궁녀 薛靈藝가 부모의 죽음을 맞아 흘린 피 같은 ‘紅淚’¹⁴⁾의 고사를 연상시킬 만큼 깊은 아픔과 고뇌를 상징한다. 여

13) 劉言史가 여행 중에 죽어 장사를 치르게 된 崔倚의 소식을 듣고 쓴 「聞崔倚旅葬」을 보면 “멀리 객이 된 이 어찌 고향 집 돌아가나, 푸른 오동나무 사이에 뼈를 묻으니 그 고통 무엇과 같을꼬. 함께 있지 못하는 친척들 서로 생각만 할 뿐, 초상 치르는 곳에 종이와 책 한 권만이 함께 슬퍼하고 있네.(遠客那能返故廬, 蒼梧埋骨痛何如. 他時親戚空相憶, 席上同悲一紙書.)”라는 기술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공부를 했음에도 뜻을 펼치지 못한 한이 그의 마음 속에 상존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4) 喻朝剛, 『全唐詩廣選新注集評』,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제6권 39쪽): “『拾遺記』: 文帝所愛美人姓薛, 名靈藝 …… 聞別父母, 歔歔累日, 淚下露衣. 至升車就路之時, 以至唾壺承淚, 壺則紅色. 既發上山, 及至京師, 壺中淚凝與血.” 這裏以女子眼淚爲‘紅淚.’의 설명을 통해 옛날 文帝가 아끼던 薛靈藝이 부모의 상을 당해 흘린 눈물인 ‘紅淚’의 표현은 미

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음은 劉言史 역시 모종의 고뇌를 안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가 처한 어려움의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여인의 한을 노래한 이 시의 행간을 통해 그의 마음도 처연하고 애통한 처지에 있음을 느낄 수 있겠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고뇌를 안고 살아가는 시인의 심정은 절기를 맞이할 때면 더욱 깊고 처연한 경지에 빠지게 된다. 立秋를 맞이하여 쓴 다음 작품에서 시름과 번뇌로 인해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立秋日」(입추에 쓰다)

商風動葉初	서풍이 잎사귀 끝을 흔드는데
蕭索一貧居	한 가난한 집에 쓸쓸히 거하네
老性容茶少	천성적으로 차를 조금밖에 못 마시니
羸肌與篋疏	피부는 마치 거친 대자리처럼 말라 있다
舊醅難重漉	이전에 걸러 놓지 않은 술은 다시 걸러내기 어렵고
新菜未勝鉏	새로 심어놓은 채소는 아직 호미를 댈 정도가 아니다
才薄無潘興	나는 재능도 박하고 潘岳이 지녔던 흥취도 없으니
便使畫僮廬	그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나 그려볼 뿐

현실에서 득의하지 못하고 세상과 싸울 힘도 없는 한 中唐 문인의 나약하고 서글픈 심정이 구절구절 맺혀있는 듯하다. 시가의 구절을 살펴보면 빈궁한 가세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걸러 놓지 않은 술”과 “심어 놓았으나 호미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린 채소” 등 모종의 무력감이 시인을 감싸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난한 중에도 문재를 발휘해냈던 潘岳을 떠올려보기도 하지만¹⁵⁾ 정작 자신은 현실이 주는 한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인의 한을 담은 눈물에 비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5) 시구 중에 나온 ‘潘興’이란 일찍이 潘岳이 「秋興賦」에서 “32세가 되자 흰머리가 나오는 되었다.(余春秋三十有二, 始見二毛)”라는 표현으로 아무 성취한 일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음을 한탄했던 것을 의식한 표현이지만 정작 시인은 그마저도 쓸 수 없을 정도의 무력감을 표현하기 위해 이 전고를 활용하고 있다.

서글픈 심신은 표현에서 기교를 부릴 만큼의 여유를 주지 않는다. 劉言史의 이러한 표현은 일개 문인의 신세한탄으로 치부될 수도 있으나 내면에 담긴 진솔한 표현은 후대 평가의 주목과 호평을 받을만한 요인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관직에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지방을 전전하는 劉言史의 심신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자신의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있던 질병이었다. 그가 冀鎮節度使 王武俊의 막료로 있을 때 王武俊이 그의 文才를 알아보고 그에게 棗強 縣丞의 벼슬을 제의한 바 있으나 劉言史가 병으로 인해 관직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고사한 기록¹⁷⁾은 劉言史의 병력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

16) 辛文房이 『唐才子傳』 卷五에서 劉言史에 대해 “시가 뛰어나고, 아름다우면서도 폭이 넓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이가 많지 않았는데 李賀, 孟郊 등과 동시에 친구로 지냈다. (工詩, 美麗恢瞻, 世少其倫. 與李賀, 孟郊同時爲友.)”라 하여 시의 기세가 수려하고 폭이 넓은 면을 칭찬하면서 李賀와 孟郊 등과 함께 거론한 것과 “故相國隴西公 李夷簡이 漢南節度使를 지냈을 때 유언사와는 어릴 적 함께 놀면서 배운 사이였다. … 그리하여 동곡하며 말하기를 ‘과연 작은 봉록이 나의 아끼는 객을 죽였도다!’라고 하며 양성에 후하게 장례치루었다.(故相國隴西公 李夷簡爲漢南節度, 與言史少同游習, …… 至是慟哭之曰: ‘果然, 微祿殺吾愛客也!’ 厚葬于襄城.”라 하여 李夷簡이 劉言史의 문재를 아끼워한 사실을 기록한 것, “피일휴가 그의 시가 금과 옥을 새기는 듯 기이함과 괴이함을 떠금고 있고 백 번 단련을 하여 한 글자를 쓰고 천 번 다듬어서 하나의 구를 지어냈으니 참으로 가작이다. (皮日休稱其賦雕金篆玉, 牢奇籠怪, 百鍛爲字, 千煉成句, 眞佳作也.)”라고 한 것 등은 劉言史가 당대 문인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실을 나타낸 기록들이다. 또한 후대인인 嚴羽가 『滄浪詩話』 「詩評」에서 “대력 이후 내가 깊이 취한 시인으로는 李長吉, 柳子厚, 劉言史, 權德輿, 李涉, 李益 뿐이라.(大歷以後, 吾所深取者, 李長吉, 柳子厚, 劉言史, 權德輿, 李涉, 李益耳.)”라 하여 大歷 이후 문인으로 劉言史를 주목하여 거론한 것은 이 시처럼 기교에 힘쓰기보다는 소박하고 진솔한 심정의 묘사를 우선시한 면모를 더욱 높이 평가한 결과라 생각된다.

17) 辛文房, 『唐才子傳』 卷五 「劉言史」: “冀鎮節度使 王武俊은 詞藝를 무척 좋아했기에 유언사가 작품을 쓰면 특별히 경이감을 표현했다. 王武俊이 일찍이 사냥을 나갔을 때 오리 한 쌍이 부들 사이에서 나는 것을 보고 화살 한 발로 두 마리를 쏘아 맞추니 유언사가 말 위에 앉아 즉석에서 「射鴨歌」를 지어 바쳤다. 이로 인해 관리로 초빙되어 棗強丞을 내렸으나 병을 이유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기에 당시에 이 일을 중히 여겼다.(冀鎮節度使 王武俊頗好詞藝, 言史造之, 特加敬異. 武俊嘗獵, 有雙鴨起蒲稗間, 一矢聯之, 遂于馬上草「射鴨歌」以獻. 因表荐請官., 授棗強令, 辭疾不就, 當時重之.)”는 기록 참조. 또한 이 일로 인해 劉言史는 皮日休 등에 의해 ‘劉棗強’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다.

이다. 조정에 반역하여 스스로 趙王이라 칭한 경력이 있는 王武俊의 수하로 있으면서 현실의 처신과 ‘歸隱’ 사이에서 마음고생하며 편치 않은 나날을 보낸 것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劉言史의 시문을 보면 ‘病’으로 힘들어한 기록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劉言史의 69제 79수의 작품 중 ‘病’이라는 단어가 14회 등장하며, 이로 인한 서글퍼하는 마음을 표현한 ‘愁’가 10회, ‘孤’가 9회, ‘寂’이 6회에 걸쳐 등장한다. 몸과 마음이 병든 채 실의에 빠진 마음을 표현한 작품을 여러 수 썼는데 다음 예거하는 타향 嘉興에서 社日¹⁸⁾을 맞이하여 쓴 작품도 그 한 예이다. 내용을 보면 세상에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병든 몸이 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한탄이 짙게 깔려있다.

「嘉興社日」(嘉興에서 社日을 맞이하여)

消渴天涯寄病身	소갈병에 걸려 먼 타향에서 병든 몸이 되어 있는데
臨邛知我是何人	臨邛 縣수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알아줄 터인데
今年社日分餘肉	올해 社日에 남은 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不值陳平又不均	나는 옛날 陳平처럼 고기를 고루 나누어 줄줄도 모르나니

타향에서 ‘消渴病(당뇨병)’에 걸려 힘든데다 자신의 무능함까지 인식하게 되니 그 괴로움은 더욱 크다. 제2구에서 옛날 司馬相如가 ‘消渴病’에 걸린 일을 회상하다보니 자신에게는 사마상여가 축으로 돌아갔을 때 예우해준 臨邛 縣令 같은 이가 없음이 더욱 한스럽다. 社日을 맞이하게 되어 고기를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옛날 陳平과 같이 고기를 남에게 고루 잘 나누어 주거나¹⁹⁾ 세상을 다스리는 재능도 없음을 느끼게 되니 한층 더 비통한 느낌

18) ‘社日’은 社稷神에게 제사지내는 날을 말하는데 立春 후 제5일을 ‘春社’라고 하고 立秋 후 제5일을 ‘秋社’라고 한다. 南朝 梁 『荊楚歲時記』 「二月」에 “社日에는 사방에서 함께 모임을 갖고 宗會社를 결성한 후 제상이 가축을 잡아 나무 아래 집을 짓고 먼저 신에게 제사한 후 그 제사 지낸 고기를 흠향한다.(社日, 四鄰並結宗會社, 宰牲牢, 爲屋於樹下. 先祭神, 然後享其胙.)”라는 구절이 있어 社稷神에게 제사 지낸 후 고기를 나누는 풍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9) 『史記·陳丞相世家』: “마을에 사일이 되니 진평이 제상이 되어 고기를 고르게 나누어 주었다. 그 아버지가 말하기 ‘훌륭하도다! 진평의 제상 역할 함이여!’라 하자 진평이

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때로 병든 몸을 추스리며 자연 경치를 찾기도 했지만 마음 편히 감상할 수 없어 아쉬웠던 느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扶病春亭」(병을 안고 봄 정자에 오르다)

強梳稀髮著綸巾	얼마 나지 않은 머리 억지로 빗고는 윤건을 쓰고
舍杖空行試病身	지팡이를 버려두고 그냥 나와 병든 몸을 시험해본다
花間自欲裴回立	꽃 사이에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서있고도 싶으나
穉子牽衣不許人	어린 아이가 내 옷을 끌고 이마저도 허락지 않네

시가의 전반에서 병든 몸을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기술해놓았다. ‘空行’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보려는 시도를 담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모습이 느껴진다. 매사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는 시인은 ‘어린 아이가 옷을 끄는(穉子牽衣)’ 단순한 일에도 자신의 의지대로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갔음을 행간을 통해 밝혀 놓고 있는 것이다.

劉言史의 시가를 살펴보면 그의 고뇌는 우국의 서정과 현실의식이 담긴 공분, 관직에서 뜻을 얻지 못하고 폄적 당하게 된 비애감, 어느 곳에 마음을 붙이지 못한 채 지방을 전전하는 고단한 신세에 대한 한탄, 王武俊 등 남의 수하에 있는 처지에서 현실 속 처신과 은거 욕망 사이에서의 갈등, 병든 몸이 되어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망감에서 기인한 각종 고뇌 등으로 요약된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불안한 시국 속에서 고뇌와 분노를 안고 신세를 한탄하며 세월을 보내는 상황은 당시 대부분 문인들이 직면했던 문제였지만 세월을 어떻게 느끼며 어떠한 풍격으로 작품을 창작했는가 하는 것은 각 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몇 수의 작품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劉言史는 公憤과 私憤의 의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으

말하길 ‘안타깝도다. 진평으로 하여금 천하에 재상 역할을 하게 하였는데도 이렇게 고기만 나누어 주다니.’라고 하였다.(里中社, 平爲宰, 分肉食甚均. 父老曰: ‘善, 陳孺子之爲宰!’ 平曰: ‘嗟乎, 使平得宰天下, 亦如是肉矣.’) 기록 참조

면서 순간의 고뇌를 진솔한 필치로 펼쳐냈는데 이는 결국 개성적인 감정표현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劉言史가 역대 평론가들에 의해 中唐 문인 중 의의를 지닌 한 인물로 인식되게 된 연유에는 시대의식과 자신의 각종 고뇌를 진지하게 펼쳐내며 창작에 참여한 것이 인정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

Ⅲ. 결어

劉言史는 고뇌하는 현실에 직면한 시인이었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작품 중 약 3분의 1에 달하는 시가가 현실의식과 자신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여느 문인들처럼 劉言史 역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과 번민 속에 살아갔던 中唐 문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시인이었다. 그러나 劉言史는 그 속에서도 시대적 의식을 소유한 채 폭넓은 관점과 진솔한 필치를 가미하여 자신의 고민을 기록하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엇을 위해 고뇌하고 어떻게 작품을 창작하는가에 따라 고뇌의 기록이 가치를 갖게 되는데 劉言史의 작품을 보면 세속적 고뇌를 뛰어넘는 숭고한 고뇌를 지향한 면모를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지나친 욕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집착하거나 사소한 일로 인한 걱정애 빠져있지 않은 앎을 살필 수 있다. 劉言史는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꺾여 당해 지방을 전전하거나 타인 수하에서의 갈등하고 병들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국에 대한 의식을 놓지 않고 번뇌를 표출하면서 진솔한 표현과 추구를 넘나드는 표현을 이루어내고자 노력하였다. 재야문인이었지만 성실하게 창작의 꽃을 피움으로써 中唐 문인들의 고민과 의식을 살필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을 다수 창작해냈다는 점에서 역대 문인들이 평가한 ‘一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79.
- 孟 郊, 『孟東野詩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9.
- 辛文房, 『唐才子傳』,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8.
- 傅璇琮, 『唐才子傳校箋』, 北京: 中華書局, 2000. 2.
- 許 總, 『唐詩史』,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5. 3.
-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3. 1.
- 陳伯海 主編, 『唐詩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5. 5.
- 喻朝剛, 『全唐詩廣選新注集評』,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 商隸君, 「劉言史生平考」, 渤海學刊, 1988, 2기.
- 商隸君, 「中唐詩人劉言史初論」, 滄州: 滄州師範專科學校學報, 2003. 6. 제19권 2기.
- 胡 蓉, 「論劉言史詩歌的地域性」, 邢台: 邢台學院學報, 2008. 3. 제23권 1기.
- 胡 蓉, 「平實鋪張, 美麗恢瞻—論中唐河北詩人劉言史詩歌的藝術性」, 邢台: 邢台學院學報, 2009. 3. 제24권 2기.
- 賈建鋼·李紅霞, 「中唐劉言史詠茶詩臆論」, 農業考古, 2014, 제2기.
- 范文華·任芑朴, 「莫道盛唐歲月老邯鄲古地有新篇—評『唐代司空曙、劉言史詩歌注釋與研究』」, 石家莊: 中共石家莊市委黨校學報, 2013. 10. 제15권 10기.
- 周圍光, 「論劉言史比于李賀」, 安徽文學, 2016, 제4기.
- 周圍光, 「中唐詩人劉言史的生平與詩歌創作」, 『山海經』, 2016. 3.
- 고팔미, 「韓孟시파의 창작론과 심미성향」, 중국학연구 제26집, 2003. 12.

Abstract

A Study on *Liu-Yanshi's* actuality on current situation and personal sufferings

Bae, Daniel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tudy on the aspects of *Liu-Yanshi*(劉言史)'s actuality on current situation and personal sufferings. *Liu-Yanshi*(劉言史) is one of the poets of Middle Tang Dynasty. There are a few articles on *Liu-Yanshi*(劉言史)'s poems by now, but still need study about his entire poems more deeply. To enlarge the research of *Liu-Yanshi*(劉言史)'s poems, I have noticed the actuality on current situation and his personal sufferings. The aspects of the actuality on current situation and his personal sufferings in *Liu-Yanshi*(劉言史)'s poetry can be summarized as that :

The first, *Liu-Yanshi*(劉言史)'s poetry basically contained the sense of sorrow about social aspect of Middle Tang Dynasty and his own life story. In many part of his poem, he expressed his feelings of sadness, and the feeling make his poem melancholy style. There's a pathos in his poems which he never lets slide into sentimentality.

The second, *Liu-Yanshi*(劉言史) have expressed rich emotion about his personal sufferings and pains by using forthright vocabulary in his poem. That also means he have the intense aspirations toward human nature. Forthright vocabulary can provide truthful and emotional spray, so he can pursued more clear and fresh style in his poetry.

Key words : *Liu-Yanshi*(劉言史), actuality on current situation, personal sufferings, the poetry of *Liu-Yanshi*, Middle Tang Dynasty, pain of human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